

세종대, 시스템반도체 G2 프로젝트 세미나 주최

등록 2023.11.08 09:32:37



지난 3일 세종대 대양AI센터에서 개최된 세종과학기술연구원(SAIST) G2 프로젝트(시스템반도체)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세종대와 세종대 산학협력단, 세종연구원 세 곳이 공동으로 지난 3일 대양AI센터에서 세종과학기술연구원(SAIST) G2 프로젝트(시스템반도체) 세미나를 주최했다고 8일 밝혔다.

백성욱 세종대 연구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종대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김동순 교수, 정용운 교수, 김영우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배덕호 세종대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SAIST G2 프로젝트 세미나가 한국 시스템반도체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종대는 시스템반도체 분야 개발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시스템반도체는 21세기 문명의 진로를 규정할 가장 중요한 톨"이라며 "팹리스의 추진 동력은 연구능력이 우수한 대학에 의존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분야를 육성해 한국이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쥐게 해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시스템반도체 연구에 새로운 획을 그치고 우리나라가 G2의 반열에 오르는 초석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순 교수가 '첨단반도체 설계와 인공지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교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약 2.5배 이상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글로벌 점유율은 3%"라며 "종합 반도체 강국을 위해서는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에 대해 "첨단 기술 중심의 연구와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세종대는 지식기반 학습을 이 용한 인공지능에 적용할 수 있는 Si반도체 연구에 집중해 가정용 로봇과 무인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Game Changer 인공지능 시스템반도체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용운 교수는 '아날로그 통합 디자인과 4차 산업혁명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정교수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IC설계에 대한 교육과 팹리스 기업 발전이 중요하다"며 "세종대는 초고속 데이터 통신 연구, IoT IC 설계, 인공지능반도체 등을 연구하고 있고 앞으로는 양자컴퓨팅 연구도 활발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우 교수가 '포스트무어 법칙의 시대: 패키징 기술에 기반한 커스텀 2.5차원 반도체 시스템 설계'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교수는 "트랜지스터 소형화(무어의 법칙)가 한계에 이르렀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패키징 기술에 기반한 시스템 소형화와 이종접합, 2.5/3차원 집적이 제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패키징 기술의 대표적 어려움이 설계 복잡성인데, 세종대는 이를 위해 설계/분석 자동화 기법개발, 칩-패키지 동시 설계 방법론, 어드밴스드 패키지 개발, 패키지 아키텍처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young4452@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